

QSCC II, MBTI, STAI를 통해 파악한 四象體質別
心理的 特性에 관한 연구
－ 體質別 養生法 研究의 基礎 研究로써－

송민선¹⁾ · 백진웅²⁾ · 최찬현³⁾*

¹⁾동신대학교 간호학과, ²⁾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³⁾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f Psychological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QSCC II, MBTI, STAI

－ Preliminary Study for Yangsaeng(養生) in Sasang Constitution－

Min Sun Song,¹⁾ Jin Ung Baek²⁾ & Chan Hun Choi³⁾*

¹⁾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²⁾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aits to sasang constitution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14 people, who were consists of 35 persons of Taeumin, 34 persons of Soyangin and 45 persons of Soeumin. We were analyzed psychological trait with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s(MBTI)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lso, We were analyzed physical trait with the Body Mass Index(BMI)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Each sasang constitutions personality type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only in the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p=0.012$). In the relationship of BMI, Taeumin showed bigger BMI compared to others ($p<0.001$).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oyangin was higher in the extraversion(odds

· 접수 : 2009년 7월 15일 · 수정접수 : 2009년 8월 10일 · 채택 : 2009년 8월 11일

* 교신저자 : 최찬현,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Tel : 061-330-3515, Fax : 061-330-3519, E-mail : mensolog@dsu.ac.kr

ratio[OR], 3.48;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1.18-10.26) compared with Taeumin. Also, each sasang constitution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trait-anxiety($p=0.047$). The score of trait-anxiety in Soeum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aeum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particular samples could not represent the population, because the students from one college had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we will perform this study in general population. At the same time, we will also develop approaches consider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stitution in the management of subjects.

Key words : QSCCII, MBTI, SATI, BMI, Sasang Constitution

I. 서론

東醫寶鑑 集例¹⁾에서 許浚이 中國의 南北醫와 구별하여 東醫學이라고 지칭한 조선 韓醫學의 특징은 精氣神과 이의 배양을 위한 개인 심신수양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수양을 강조한 心身一元論의 醫學의 전통은 조선말 東武 李濟馬의 사상의학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²⁾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한 후 각 체질에 맞는 생리 및 병리적 특징과 치료법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예방법 및 양생법까지 제시하였다. 사상의학에서 예방법 및 양생법을 중시했음은 東醫壽世保元 廣濟說의 “교만하고 사치하면 수명을 감소시키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수명을 감소시키고, 성질이 편급하면 수명을 감소시키고, 욕심이 많으면 수명을 감소시킨다..... 간약하면 장수하고, 근간하면 장수하고, 경계하면 장수하고, 문건하면 장수한다.”³⁾ 라는 언급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체질별 예방법 및 양생법의 실천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체질 분류와 이에 따른 심리적 및 육체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확한 체질 구분은 사상의학의 핵

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상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사상체질의 형태학적인 측면을 관찰한 것으로는 이 등⁴⁾, 홍 등⁵⁾, 고 등⁶⁾, 홍 등⁷⁾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사상체질과 체격, 체력, 신체조성 및 체구성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것으로는 최 등⁸⁾, 임 등⁹⁾, 김 등¹⁰⁾, 김 등¹¹⁾, 배 등¹²⁾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상체질과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를 이용한 성격 유형과의 연관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채 등¹³⁾, 조 등¹⁴⁾, 박 등¹⁵⁾, 성 등¹⁶⁾의 연구가 있었으며,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활용한 김 등¹⁷⁾의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과 연관지어 사상체질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파악 연구¹⁸⁾, 신체자신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파악 연구¹⁹⁾, 그리고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 파악 연구²⁰⁾들도 시도되었다. 이 외에도 사상체질분석, 심리유형 검사,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 유전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각종 질환 및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채 등²¹⁾의 연구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신체적 및 심리적 특징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행해졌고, 이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지만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QSCCII),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체질량 지수(BMI)를 동시에 검사 및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각 체질별 예방법 및 양생법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QSCCII)를 통해 먼저 사상체질을 구분하고,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및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며, 체질량 지수(BMI)를 통해 신체적 특성을 조사하여 각 체질별 심신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유형, 불안척도 및 체질량 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시기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중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로 체질이 분류된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참여자는 119명이었으나, 체질이 판정되지 않거나 자료입력이 미흡한 대상자 5명은 제외되어 총 11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내용 및 방법

1) 사상체질 검사

사상체질 분류는 김²²⁾의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QSCC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를 작성하게 한 후 순천소재 D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외 체질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4가지 체질로 분류하였다.

2) 성격유형 검사

성격유형 검사는 D대학교 학생능력개발처 상담실에서 시행하였다. 성격유형 검사도구로는 Jung²³⁾의 성격유형이론을 수정·보완하여 Myers와 Brigg에 의해 제작된 성격유형 검사(Ma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 MBTI)를 김 등²⁴⁾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BTI는 총 9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채점방식은 자기채점식은 GS형을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외향(Extroversion)-내향(Introversion), 감각(Sensing)-직관(Nutuition), 사고(Thinking)-감정(Feeling), 판단(Judging)-인식(Percepti on) 8가지 성격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불안척도

불안척도는 Spielberger²⁵⁾가 개발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측정도구를 김 등²⁶⁾이 표준화한 한국판 STAI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자기 보고형 불안척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상태불안(state anxiety)은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개인차를 가지는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으로 나타나는 특성불안(trait anxiety)은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불안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상태불안은 0.867, 특성불안은 0.834였다.

4)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²)으로 측정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태평양 비만 기준²⁷⁾에 따라 23.0kg/m² 미만은 정상, 23.0-24.9kg/m²는 과체중, 25.0kg/m²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는 SAS Window용(ver 9.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ANOV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체질에 따른 성격유형은 Chi-Square test,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체질에 따른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체질량지수는 ANOVA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Tukey 검정을 통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체질에 따른 체질량지수별 분포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체질량지수,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사상체질, 체질량지수,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의 성격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체질별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체질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114명 중 太陰人은 35명(30.7%), 少陽人은 34명(29.8%), 少陰人은 45명(39.5%)으로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순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체질별 인구학적 특성

체질에 따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太陰人 23.7±7.6세, 少陽人 21.6±5.6세, 少陰人 22.1±5.5세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은 太陰人 남자 18명(51.4%), 여자 17명(48.6%), 少陽人 남자 8명(23.5%), 여자 26명(76.5%), 少陰人 남자 21명(46.7%), 여자 24명(53.5%)으로 군간에 유의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n=114)

Characteristics	Taeumin(n=35)	Soyangin(n=34)	Soeumin(n=45)	χ ² or F	p
	Mean±SD or n(%)	Mean±SD or n(%)	Mean±SD or n(%)		
Age(years)	23.7±7.6	21.6±5.6	22.1±5.5	1.05	0.355
Gender					
Male	18(51.4)	8(23.5)	21(46.7)	6.45	0.040*
Female	17(48.6)	26(76.5)	24(53.5)		
Religion					
Yes	15(42.8)	16(48.5)	22(48.9)	0.33	0.846
None	20(57.2)	17(51.5)	23(51.1)		
Smoking					
Yes	5(14.3)	2(5.9)	7(15.6)	1.87	0.422
No	30(85.7)	32(94.1)	38(84.4)		
Drinking					
Yes	19(54.3)	24(70.6)	26(57.8)	2.15	0.341
No	16(45.7)	10(29.4)	19(42.2)		

* : p<.05 † : p<.001

Table 2. Personality typ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114)

	Taeumin(n=35)	Soyangin(n=34)	Soeumin(n=45)	X ²	p
	n(%)	n(%)	n(%)		
Extroversion(E)	15(42.9)	22(64.7)	14(31.1)	8.91	0.012*
Introversion(I)	20(57.1)	12(35.3)	31(68.9)		
Sensing(S)	23(65.7)	21(61.8)	37(82.2)	4.64	0.098
Nutuition(N)	12(34.3)	13(38.2)	8(17.8)		
Thinking(T)	21(60.0)	15(44.1)	29(64.4)	3.45	0.178
Feeling(F)	14(40.0)	19(55.9)	16(35.6)		
Judging(J)	16(45.7)	15(44.1)	29(64.4)	4.18	0.124
Perception(P)	19(54.3)	19(55.9)	16(35.6)		

* : p<.05 * : p<.001

차이가 있었다(p=.040). 종교는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흡연상태도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음주상태는 太陰人은 음주를 하는 경우는 19명(54.3%),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16명(45.7%), 少陽人은 음주를 하는 경우는 24명(70.6%),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명(29.4%), 少陰人은 음주를 하는 경우는 26명(57.8%),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19명(42.2%)으로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모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결혼 상태, 종교, 현재 흡연상태 및 현재 음주상태의 체질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체질에 따른 성격유형

체질에 따른 성격유형을 보면, 체질 간에 외향형과 내향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2),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질에 따른 외향형과 내향형의 유형을 보면 太陰人은 내향형, 少陽人은 외향형, 少陰人은 내향형이 많아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2), 감각형과 직관형의 유형을 보면 太陰人, 少陽人과 少陰人은 감각형이 많았다. 사고형과 감정형의 유형을 보면 太陰人은 사고형, 少陽人은 감정형, 少陰人은 사고형이 많았다. 판단형과 인식형의 유형을 보면 太陰人과 少陰人은 인식형, 少陽人은 판단형이 많았다<Table 3>.

4. 체질에 따른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체질에 따라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을 보면, 太陰人은 외향성이고(E), 감각기능을 선호하고(S), 의사를 결정할 때는 사고형이며(T), 외부세계에 대한 판단태도를 가지는(J) ESTJ가 1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少陽人은 외향성이고(E), 직관기능을 선호하고(N), 의사를 결정할 때 감정형이며(F),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태도를 가지는(P) ENFP가 1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少陰人은 내향성이고(I), 감각기능을 선호하고(S), 의사를 결정할 때는 사고형이며(T), 외부세계에 대한 판단태도를 가지는(J) ISTJ가 2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4>.

Table 3. Frequency of MBTI's 16 typ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114)

Types	Taeumin(n=35)	Soyangin(n=34)	Soeumin(n=45)
	n(%)	n(%)	n(%)
ESTJ	6(17.1)	3(8.8)	8(17.8)
ISTJ	5(14.2)	4(11.8)	12(26.7)
INTP	4(11.4)	1(2.9)	1(2.2)
ENFP	3(8.6)	6(17.7)	1(2.2)
ISFP	3(8.6)	2(5.9)	4(8.9)
ESTP	2(5.7)	3(8.8)	1(2.2)
ESFP	2(5.7)	4(11.8)	1(2.2)
INFP	2(5.7)	1(2.9)	2(4.5)
ISTP	2(5.7)	0(0.0)	6(13.3)
ISFJ	2(5.7)	1(2.9)	4(8.9)
ESFJ	1(2.9)	4(11.8)	1(2.2)
ENTP	1(2.9)	2(5.9)	0(0.0)
INTJ	1(2.9)	2(5.9)	0(0.0)
INFJ	1(2.9)	1(2.9)	2(4.5)
ENTJ	0(0.0)	0(0.0)	1(2.2)
ENFJ	0(0.0)	0(0.0)	1(2.2)

Table 4. STAI and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n=114)

Characteristics	Taeumin(n=35)	Soyangin(n=34)	Soeumin(n=45)	F	p
	Mean±SD	Mean±SD	Mean±SD		
Stait-anxiety	40.7±5.9	43.5±6.8	44.3±7.3	19.74	0.058
Trait-anxiety	40.3±6.7 ^a	41.8±6.4	44.1±6.9a	0.25	0.047*

^a: The same lett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p<.05 †: p<.001

5. 체질에 따른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체질에 따른 불안 정도를 보면, 상태불안은 少陰人이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성불안은 太陰人이 40.3±6.7점, 少陽人이 41.8±6.4점, 少陰人이 44.1±6.9점으로 少陰人에서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해 특성불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47)<Table 5>.

6. 체질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체질량지수별 분포

체질에 따른 체질량지수를 보면, 太陰人이 23.7±2.8kg/m², 少陽人이 20.6±1.6kg/m², 少陰人이 20.5±2.2kg/m²로 太陰人이 가장 높았으며,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다중비교 결과 太陰人이 少陽人과 少陰人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체

Table 5. Body mass index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n=114)

	Taeumin(n=35)	Soyangin(n=34)	Soeumin(n=45)	F or χ^2	p
	n(%) / Mean±SD	n(%) / Mean±SD	n(%) / Mean±SD		
Body mass index(kg/m ²)	23.7±2.8 ^{ab}	20.6±1.6 ^a	20.5±2.2 ^b	23.05	<0.001 [†]
Distribution of obesity					
Normal	13(37.2)	31(91.2)	39(86.7)	34.80	<0.001 [†]
Overweight	11(31.4)	3(8.8)	4(8.9)		
Obesity	11(31.4)	0(0.0)	2(4.4)		

^{a, b} : The same lett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 p<.05 † : p<.001

Table 6. Result of multivariate analysis adjusted for sex and body mass index

Variable	EI		S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Regression coefficient	p	Regression coefficient	p
Soyangin (to Taeumin)	3.48	1.18-10.26	0.39	0.12-1.30	3.25	0.068	1.89	0.282
Soeumin (to Taeumin)	0.83	0.30-2.35	1.09	0.32-3.67	4.50	0.009*	5.08	0.003*
Body mass index	1.03	0.86-1.23	0.82	0.67-1.01	0.36	0.223	0.33	0.255
Woman (to Man)	1.10	0.46-2.63	1.19	0.45-3.12	2.13	0.132	3.20	0.023*

EI : Extroversion/Introversion, SN : Sensing/Nutuition, CI : Confidence Interval

* : p<.05 † : p<.001

질에 따른 체질량지수별 분포를 보면, 太陰人의 과체중과 비만 대상자가 11명(31.4%)으로 많았으며, 체질량지수가 정상 범위에 속한 대상자는 少陰人이 39명(8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少陽人, 太陰人 순이었다(p<0.001) <Table 5>.

7. 체질량지수와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성격유형과 불안척도의 다변량분석

성격유형에 따른 다변량분석 결과, 체질량지

수와 성별을 통제하여도 太陰人에 비해 少陰人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향형이 많았다 (OR 3.48, 95% CI 1.18-10.26). 그러나, 감각형과 직관형에서는 체질별, 체질량지수 및 성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불안정도에 따른 다변량분석 결과, 太陰人에 비해 少陰人에서 상태불안(p=0.009) 정도와 특성불안(p=0.003)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특성불안(p=0.023)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6>.

IV. 고 찰

사상의학에서는 인간 性情의 편차에 의해 臟腑의 大小가 나누어져 생리, 병리적 현상이 달라지고 외형에도 영향을 주므로 치료법 뿐 아니라 예방법 및 양생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²⁸⁻³⁰⁾ 따라서 사상의학의 핵심은 체질감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臟腑大小는 哀怒喜樂의 네 가지 性情의 편차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性情의 차이가 체질을 나누는 근본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하여 성정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QSCC와 같은 설문지를 개발³¹⁾하여 체질분류에 객관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사상체질 분류 설문지를 통해 파악된 사상유형과 다른 류의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QSCCⅡ로 체질을 분류한 후 다시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및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며, 체질량 지수(BMI)를 통해 신체적 특성을 조사하여 분류된 각 체질에 따른 성격유형, 정서상태 그리고 체질량 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상체질과 성격유형, 심리적 및 신체적 관계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규명하여 사상체질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QSCCⅡ를 활용하여 분석된 체질의 분포는 太陰人 30.7%, 少陽人 29.8%, 少陰人 39.5%로 少陰人이 가장 많았고 太陰人과 少陽人이 비슷한 분포였으며 太陽人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순이었고, 여자는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순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과 유사한 임 등⁹⁾과 김 등¹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순으로 少陽人이 가장 많았고, 최 등³²⁾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 등³³⁾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 모두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언급한 “太少陰陽人을 오늘까지 관찰한 경과 한 고을에 사람 수가 대략 1만 명이라 하고 논한다면 그 중에서 태음인이 5,000명이고 소양인이 3,000명이고 소음인이 2,000명³³⁾”이라고 서술한 것과는 달리 보고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QSCCⅡ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관적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이의 적중률이 70% 정도라고 보고된 점³⁴⁾을 보더라도 설문지 자체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 성향, 신체적인 특성 및 환경적인 요소가 다르며⁸⁾, 또한 채 등³⁵⁾이 성별의 편향에 따라 사상유형의 분포와 심리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한 보고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영향이 모집단의 성격을 편중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와 사상유형의 연관성을 보고한 박 등³⁶⁾은 7가지 심리적 지표 중 ‘novelty seeking’이 체질의 구분에 유의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학생들로 구성된 것도 사상체질의 구성을 좌우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무공 당시의 인구구조와 1세기 후인 지금의 인구구조의 차이와 사상인 비율이 문헌에 따라 다르게 언급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동무공이 정확한 비율보다는 후학들에게 참고의 의미로 대략적인 비율만 제시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감안해야 하며,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넓은 인구계층으로 확대하였을 경우 태음인 45.5 %, 소양인 28.2 %, 소음인 26.4 %로 동무공이 제시한 비

울과 유사해진다고 보고한 이 등³⁷⁾의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표본집단의 편중에 따른 모집단의 특성 반영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대상자의 규모를 늘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연령별, 성별, 직업 등의 여러 변수들에 체질분류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MBTI를 활용한 체질에 따른 성격유형 분석에서는 체질 간에 외향형과 내향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太陰人과 少陰人에서는 내향형이, 少陽人에서는 외향형이 많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격유형의 경향을 보면, 太陰人은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의 경향을 나타내었고, 少陽人은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少陰人의 경우는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 등⁸⁾의 연구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太陰人에서는 외향형, 少陽人에서도 외향형이, 少陰人에서는 내향형이 많은 결과를 보고하였고, 박 등¹⁵⁾의 연구에서는 太陰人은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少陽人은 외향형, 감각형, 인식형, 少陰人은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의 경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채 등²¹⁾은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군으로 내향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이를 통해 사상인 명칭의 '陰陽'이 내향성/외향성과 관계있다고 유추하였고, 채 등의 또 다른 연구³⁵⁾에서는 소양 유형은 외형성, 소음 유형을 내향성을 선호하며 태음 유형은 외향성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최 등⁸⁾과 박 등¹⁵⁾의 연구 결과에서는 太陰人이 외향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와 상기 연구들의 태음인의 내·외향성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박 등³⁶⁾이 TCI와 사상체질과의 연관성을 보고하면서 소음인과 소양인의 구분은 확연하지만 태음인은 그 중간적인 모호함이

있었다고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각 체질간의 내외향성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나타났지만 태음인이 있어서는 내외향성 비율이 42.9 %와 57.1 %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나지 않은 중간적인 구성비율을 보였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QSCC II와 MBTI의 검사결과 상의 공통적인 연관성은 少陰人이 가장 내향적이며 太陰人과 少陽人순으로 외향성이 증가했으며, 少陰人은 감각형, 사고형, 太陰人은 감각형, 사고형, 少陽人은 인식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사상체질과 성격유형의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상체질의 분류에 있어 일부 성격유형이 빈도적으로 낮아 검출하기 어렵고, 성격유형이 양자에 속해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전국적으로 일반화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되고 있다⁸⁾. 또한 각종 사상체질 진단 검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화된 수학적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 등³⁸⁾의 연구에서 사상체질 진단검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검토할 수 없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처럼 서로 다른 진단법 간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상호 비교를 통한 최적의 진단 방법 선택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아울러 범국민적인 사상체질과 다양한 성격유형의 표준화를 통해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유형의 일반화 연구를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STAI를 활용하여 사상체질과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조사한 체질과 불안과의 연관성에선 상태불안척도는 체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특성불안척도는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서 등²⁰⁾의 연구에서 상태불안은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특성불안은 少陰人이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태불안이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성불안은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해 서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박³⁹⁾은 Jung의 심리학적 특성과 사상체질별 성격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정서적 민감성의 하위요인으로 불안에 대해 少陰人은 다른 체질에 비해 자주 긴장되고, 불안 초조하다고 보고한 것을 볼 때, 少陰人은 특히 다른 체질에 비해 스트레스에 높게 지각하여 세심한 중재가 필요한 체질이며¹⁸⁾, 이는 少陰人의 성격 특성이 '소심하다'에서 유의성 있게 변별된다는 연구³¹⁾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사상체질과 신체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분석한 사상체질과 체질량지수의 관련성에서는 太陰人이 少陽人과 少陰人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과체중과 비만 비율도 높았다. 사상체질을 보면 太陰人에서 가장 많은 비만인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20대 중심의 비만 여성 중에 88.82%가 여기에 해당되며, 타 연구들¹¹⁻¹²⁾에서의 전체 비만의 70.2%가 太陰人이 가장 많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太陰人은 체구가 장대하고 위장기능이 좋아 식성이 좋고 음식을 잘 먹는 체질이어서, 체질간 영양소 섭취량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太陰人이 少陽人이나 少陰人에 비해 열량 및 열량 영양소 섭취가 높았다⁴⁰⁾고 보고된 것처럼, 太陰人은 비만발생 가능성이 높은 체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질을 고려함에 있어 섭취하는 식품의 기호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유형, 불안과의 관계 및 체질량지수와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1개 한의과대학에서 편의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한 연구로써 여러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지만 이들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체질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상태, 성격유형, 정서상태 등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사상체질, 성격유형, 심리유형 및 신체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다면적 통계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들 간의 연관성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研究는 각 體質別 豫防法 및 養生法 研究를 위한 기초 研究로써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四象體質에 따른 성격유형, 불안과의 관계 및 체질량지수와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한의과대학생 총 114명을 연구대상으로 四象體質 분류 검사지 QSCCⅡ를 통해 분류하고, 성격유형 검사인 MBTI를 통해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STAI를 이용하여 불안 정도를 조사하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측정 후 이들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四象體質은 太陰人 30.7%, 少陽人 29.8%, 少陰人 39.5%로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순의 분포를 보였다. 四象體質에 따른 성격유형은 외향형과 내향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太陰人은 내향형, 少陽人은 외향형, 少陰人은 내향형이 많았다. 四象體質에 따른 불안 정도에서 상태불안은 체질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성불안은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유형, 체질량지수 및 불안정도만을 연구에 포함하였으나, 향후 대상자의 표본수를 늘려 사상체질, 성격유형, 신체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특성별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

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상관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94: 69.
2. 김병수, 강정수, 東醫寶鑑 集例에 근거한 동아시아 전통의학 역사의 삼원적 구조; 한의학과 중의학의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22(4): 746-753.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 교실.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8: 422, 425.
4.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 10(2): 181-220.
5. 홍석철,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 이목구비의 형태학적 특징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 10(2): 221-270.
6. 고병희, 송일병, 조용진, 최창석, 김종현, 홍석철, 이의주, 이상용, 서정숙.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1996: 8(1): 101-186.
7. 홍석철, 이의주, 이수경, 한기환,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별 상안부 Moire 형태의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 10(2): 271-282.
8. 최현민, 김형돈. 사상체질과 체격, 체력, 신체조성 및 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 한국체육학회지. 2006: 45(1): 823-834.
9. 임병규, 김순정, 임용혁. 대학생의 사상체질과 건강관련체력의 관련성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005: 44(6): 1195-1205.
10. 김순정, 심정옥, 최종인.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사상체질과 체구성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16(3): 335-344.
11. 김경준, 김달래. 체질별 혈청지질성분의 분석에 관한 실험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3: 5(1): 145-151.
12. 배정환. 비만환자 설문지 답변을 통하여 본 한의학 양생의 의미. 한방재활학회지. 1997: 7(2): 118-134.
13. Chea H, Lyoo IK, Lee SJ, Cho S, Bae H, Hong M, Shin M. An alternative way to individualized medicine: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J Altern Complement Med. 2003: 9(4): 519-528.
14. 조용태,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 성격요인(16PF), 성격유형검사(MBTI)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 1994: 6(1): 21-39.
15. 박희관, 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용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 10(2): 41-50.
16. 성진혁, 한국MBTI 연구소.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 유형의 설문 비교 연구. 사상의학회지. 2001: 13(2): 156-164.
17. 김종원, 김종우,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와 다면적인성검사(MMPI)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감별과 사상체질별 인격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94: 15(1): 66-74.
18. 전은영. 1개 간호대학생의 체질별 자기효능 및 건강증진 생활방식. 성인간호학회지. 1999: 11(2): 308-317.
19. 나정신, 조문주, 임의영, 김우경, 권영경. 중학교 학생들의 사상체질과 신체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2005: 44(1): 103-113.
20. 서용, 김형락, 권보형, 송정모. Beck 우울척도, 상태-특성 불안척도를 이용한 사상인의 심리특성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2000: 12(1): 136-143.

21. 채한, 홍무창, 배현수, 신민규. 사상인의 생리적 특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2):304-314.
22. 김선호. 사상체질분류 검사지의 표준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23. Jung. C.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24. 김정택, 심혜숙.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0: 상담과 심리치료 3(1):44-72.
25.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ehene, R.E. Manual for the trait-anxiety interview(self-evaluation questionnaire).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26. 김정택, 신동균. STA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1978:21(11):69-75.
27.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Sydney, Australia, Health Communication Australia Pty Ltd. 2000
28. 김지영, 김중원, 고병희, 송일병. 체질별 식품분류의 타당성과 활용에 관한 소고. 사상의학회지. 1995: 7(1): 263-279.
29. 안상우, 조황성. 동종요법의 기본원리와 사상체질의학의 비교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 8(2): 165-190.
30. 도영민, 윤창열. 運氣學과 四象體質醫學을 통한 人間體質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1: 9(2): 29-41.
31. 김종열, 김홍기.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학회지. 2003: 15(3): 124-138.
32. 최선미, 지상은, 정보연, 성현제, 안규석, 고병희. 사상체질 분류검사에 의한 체질 진단과 체성분 분석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1): 24-34.
33. 최문일. HPLP와 사상체질설문을 이용한 근로자의 건강상태평가.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4. 李廷燦, 高炳熙, 宋-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 (QSCC) I I 에 對한 妥當性 研究 -各體質集團의 群集別 Profile 分析을 中心으로-. 사상의학회지. 1996: 8(1): 247-294.
35. 채한, 박수진, 이수진, 고광찬, 사상유형학의 성격심리학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4: 25(2): 151-164.
36. Park SH, Kim MG, Lee SJ, Kim JY, Chae 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typology in an adult clinical sample, *eCAM*, 2009:1-7(Advance access published, doi: 10.1093/nep034).
37. 이태규, 황민우, 함통일, 이수경, 최봉근, 고병화, 송일병. 韓國人의 四象人 分布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17(3): 12-21.
38. 이수진, 김명근, 채한. 사상체질 진단검사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8: 29(1): 7-14.
39. 박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 심성연구. 2000: 15(2): 87-177.
40. 김은진. 사상의학의 체질에 따른 식품분류와 태음식 섭취가 각각 체질의 혈액 생화학적 지표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99: 32(7): 827-837.